

平人の呼吸脈動과 寸口人迎에 대한 연구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¹

이혜연¹ · 강정수¹ *

Study on Breathing and Pulsation, Chongu and Inyeong of Healthy Man

Lee Hye-yeon¹ · Kang Jung-soo¹ *

¹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When feeling the pulse, healthy man's pulse is the criterion for diagnosis whether you are a sick person. Healthy man is defined as one who is harmonious and not sick in sympathy with natural order. Among the factors for being Healthy man, breathing and pulsation, Chon-gu(寸口) and Inyeong(人迎) are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representative methods of feeling the pulse which are used currently.

According to 『Hwangjenaegyong(黃帝內經)』 on breathing and pulsation, the pulse beats twice per a breathing-in and a breathing-out each. And for a specific breathing, it beats 5 times including the remnant with a big breath. That the pulse beats twice means that it beats not only twice, but also regularly and repeatedly. The remnant is related to the meaning on a leap month, 5-time beating during a breath is connected with the contents of Osipyong(五十營). A human is not always in stable and sticks to balance continuously with changes under the circumstances. So when it comes to a criterion how to measure the pulsation frequency, breathing is much more reasonable than pulsation and breathing calculated for a minute.

According to 『Hwangjenaegyong(黃帝內經)』, Healthy man is the person of whose Chon-gu and Inyeong are in order and much the same in response to each other. Although there is a minor difference in the meaning of term between Chon-gu and Gigu(氣口), Maekgu(脈口) in originally, it is used as almost same meaning when Chon-gu is used in opposition to Inyeong. Afterwards, depending on medical men, around neck or Chon-gu of the left hand are measured for Inyeong. However, Inyeong described in 『Naegyong(內經)』 is Jokyangmyeong(足陽明) and it means the Hyeol(穴) around neck where the pulse beats, it looks like about the carotid area. Chon-gu is fall under Eum(陰) and Inyeong(人迎) is fall under Yang(陽). Therefore Chon-gu is continuous with eumgyeong(陰經) and Inyeong is continuous with yanggyeong(陽經). In addition, the pulse and the four seasons meet each other and Inyeong is a little stronger in spring·summer and Chongu is a little stronger in fall·winter.

Key Words : Healthy man(平人), breathing, pulsation, Chon-gu(寸口), Inyeong(人迎)

I. 序論

脈診의 意義는 脈의 ‘常’과 ‘變’에 근거하여 인체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데 있고, 脈診을 통하여 無病한 사람의 平脈으로부터 환자의 病脈을 분석하여 病이 어느 經脈 或은 臟腑에 있고, 寒熱·表裏·虛實 중의 어느 것에 속하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疾病의 進退와 豫後 등도 推斷할 수 있다¹⁾. 따라서 어떤 사람이 平人인가를 알아야 진단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平人에 대하여 『素問·平人氣象論』에 “平人者 不病也 常以不病調病人”²⁾라 하여 不病한 平人으로써 病人을 살핀다고 하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不病한 사람일까? 『黃帝內經』에서는 여러 편에 걸쳐서 平人의 조건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平人은 陰陽이 均平하여 그 形을 充하게 하며, 氣와 形이 서로 걸맞고, 上下가 相應하여 往來하며, 寒溫과 四時에 順應하여 그에 따라 변화하고, 脈은 六經之脈이 不結動하고, 脈口와 人迎이 四時에 應하면서 서로 均衡을 이루고, 呼吸과 脈動이 相應하는 사람을 말한다.³⁾⁴⁾ 이것으로 볼 때, 平人이 不病하다는 것은 단순히 病이 없는 상태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同行하고 順應하며, 陰陽의 調和를 이루는 사람이라 하겠다.

脈은 人身 전체 모습을 반영하므로, 廣義의으로 平人의 모든 요소들이 모두 平脈과 연관성이 있지만, 局所的으로는 呼吸脈動과 寸口·人迎이 현재

대표적으로 쓰이는 脈法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한 呼吸脈動과 寸口·人迎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기초 검사로써 중요한 진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저자는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平人의 呼吸脈動과 寸口·人迎에 대해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및 考察

1. 平人의 呼吸脈動

『素問·平人氣象論』에 “黃帝問曰 平人何如 岐伯對曰 人一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 脈五動 閏以太息 命曰平人”⁵⁾이라고 하여 사람은 一呼에 脈이 再動하고 一吸에 脈이 또한 再動하여 呼吸定息에 脈이 다섯 번 動하면서 閏으로써 太息하는 것을 命하길 平人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人一呼脈一動 一吸脈一動 曰少氣. 人一呼脈三動 一吸脈三動而躁 尺熱曰病溫 尺不熱 脈滑曰病風 脈澀曰痺 人一呼脈四動以上曰死 脈絕不至曰死 乍疎乍數曰死”⁶⁾이라 하여 一呼에 再動하지 않고 1번 혹은 3-4번 動하는 것을 病이라 하였고, 脈이 絶하여 不至하거나 일정하게 動하지 않아서 乍疎乍數하면 死한다고 하였다.

이는 呼吸하는 동안 動하는 脈數로 平人을 정할 수 있으며, 平人의 呼吸과 脈數를 기준으로 하여 病人을 판단하고, 脈數 異常에 따라 해당되는 병증과 甚해져서 죽으려는 상태도 유추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呼吸과 脈數로 定한 平人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脈再動

再動은 두 번 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一動, 三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二動이라고는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omdkjs@dju.kr Tel : 042-280-2617

접수일(2009년 9월 9일), 수정일(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0일)

- 1) 이봉교. 한방진단학. 서울. 成輔社. pp.161-162. 1986.
-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218. “人一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 脈五動 閏以太息 命曰平人”, “陽注於陰 陰滿之外 陰陽均平 以充其形 九候若一 命曰平人”
-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1. 221. “所謂平人者不病 不病者 脈口人迎 應四時也 上下相應 而俱往來也 六經之脈 不結動也 本末之寒溫之相守司也 形肉血氣必相稱也 是謂平人”, “寸口主中 人迎主外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繩代小齊等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如是者 名曰平人”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하지 않았다. 보통 한자로 ‘둘’이라는 표현할 때에 ‘二’, ‘兩’, ‘再’ 字를 사용하는데, 이 세 글자들은 그 쓰임새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二⁷⁾는 둘, 두 가지, 둘째 등의 의미이며 두 가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 쓰는 글자이고, 兩⁸⁾은 하나의 갑절, 짝이나 쌍을 이루는 것, 길이나 중량의 단위로 사용되며, 再⁹⁾는 거듭, 다시의 뜻으로 어떤 한 일이 일어난 후 거기에 겹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再는 반복의 둘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내용들로 보아, 脈이 두 번 動한다는 말을 표현함에 있어 二動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가 똑같이 고르지는 않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再動’이라 하여 脈動이 거듭거듭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呼吸에 應하여 再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再動의 再動, 그 再動의 再動이라는 의미로 확대하여 생각해 보면 脈動은 呼吸과 함께 계속 일정하게 動한다는 뜻도 되는데, 뜻도 되는데, 「靈樞動脈」에서 “人一呼 脈再動 一吸 脈亦再動 呼吸不已 故動而不止”¹⁰⁾라 하여 呼吸이 그치지 않으므로 動而不止한다고 한 내용과도 통한다. 이로써 再動에는 脈動數가 두 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반복하여 動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呼吸定息 脈五動 閏以太息

一呼에 脈이 두 번 動하고, 一吸에 脈이 두 번 動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해 보면 一呼一吸에 脈이 총 네 번 動하게 되는데, 呼吸定息에 脈이 五動하고 閏으로써 太息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歷代 醫家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王冰은 “經脈이 몸을 一周함에 무릇 길이는 16

丈2尺이다. 呼吸에 脈은 각각 再動하고 定息에 脈은 또한 一動하니 곧 五動이다. 270定息에 氣가 環周한다. 그렇게 50營하여 13,500息을 다하면 氣는 모두 810丈을 行한다. 이와 같이하면 天의 常度에 應하여 脈氣에 不及太過가 없으니, 氣가 항상 平調하다. 그러므로 平人이라 한다.”¹¹⁾고 하여 呼吸에 4動하고 定息에 1動하여 呼吸定息에 5動한다고 하였다.

高士宗은 “一呼一吸을 一息으로 한다. 平人の 脈은 一呼에 두 번 動하고 一吸에 두 번 動하는 것과 呼吸定息의 때에 또한 마땅히 一動함을 合하였으므로 脈五動이라 한다. 五動이 되는 까닭은 이에 閏으로써 太息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를 모아 閏을 이루듯이 息에 있어 太過가 되는 것을 不病한 平人이라 命한다.”¹²⁾고 하였다.

馬蒔는 “一息에 五至하는 脈診이 無病한 것이 됨을 말한다. 鼻中에 氣를 出하는 것을 呼라고 하고, 氣를 入하는 것을 吸이라고 한다. 呼吸定息을 모두 一息이라고 한다. … 呼吸定息에 脈이 五至에 이른다. 歲에 閏을 두는 것과 같이 이렇게 閏으로써 太息하는 脈으로 一息에 五至가 된다. 이와 같은 것을 平人이라고 名한다. 醫人이 一息하면 無病한 사람 또한 一息하기 때문에 그 脈의 五動이 不病한 것임을 안다. 마땅히 不病한 사람으로써 저러한 病이 있는 사람을 調한다.”¹³⁾고 하였다.

李中梓는 “動이 至함이다. 一呼에 2번 動하고 一吸에 2번 動하는데, 呼吸定息을 合하여 一息이라고

11)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柱.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333-334. “經脈一周於身 凡長十六丈二尺 呼吸脈各再動 定息脈又一動 則五動也 計二百七十定息 氣可環周 然盡五十營 以一萬三千五百定息 則氣都行八百一十丈 如是則應天常度 脈氣無不及太過也 氣常平調 故曰平人也”

12)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136. “一呼一吸 爲一息 平人之脈 一呼再動 一吸再動 合呼吸定息之時 亦當一動 故脈五動 所以爲五動者 乃閏以太息 如積餘成閏 在於息之太過也 命曰不病之平人”

1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22. “言一息五至之診爲無病也 鼻中出氣曰呼 入氣曰吸 呼吸定息 … 呼吸定息 脈遂五至 猶歲之有閏 是閏以太息之脈 乃所爲一息五至也 如此者 名曰平人 平人者 不病也 蓋醫人一息則無病之人亦一息 所以知其脈之五動 爲不病也 當以不病之人 調彼有病之人”

7)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0. p.128.
8)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0. p.248.
9)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0. p.264.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7.

하니 곧 一息에 4번 至한다. 呼吸定息 脈五動이라는 것은 그 閏으로써 太息하는 때에 해당한다. 曆家에서 3歲에 1閏하거나 5歲에 2閏한다고 하였다. 사람은 天道에 應하므로 三息에 閏으로 1번씩 太息하거나 五息에 閏으로 1번씩 太息하는 것이 2번이다. 太息이라는 것이 긴 숨이다. 이는 平人無病한 脈은 마땅히 4至가 準이 된다는 것이다. 5至와 같은 경우는 또한 太過가 되지만, 생각컨대 閏으로써 太息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5至가 된다. 진실로 太息이 아니라면 이에 4至이다.”¹⁴⁾라고 하였다.

章楠은 “一呼一吸을 一息이라 名한다. 三息中에는 반드시 한 번 길게 息함이 있어 마치 歲에 閏이 있는 듯한 것을 太息이라 名한다. 一呼一吸에 脈은 네 번 動하고, 이어서 길게 息하는 것을 계산하면 三息 중에 세 번 더 動한다. 이를 나누어지를 계산하면 매번 息에 다섯 번 動함이 되니, 五至라고 名한다. 이와 같은 것을 無病하고 平人에 이른 것이라 한다.”¹⁵⁾하여 呼吸定息에 脈은 원래 4動하는데, 閏으로써 太息함에 있어서 1動을 合하여 脈五動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들 중에서 楠虛谷은 三息中에 세 번 動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를 셋으로 나눈 1動을 閏으로 삼았다.

위의 의견들과는 달리 張介賓은 “氣를 出하는 것을 呼라고 하고, 氣를 入하는 것을 吸이라고 한다. 一呼一吸을 통틀어서 一息이라 名한다. 動은 至이다. 再動은 兩至이다. 常人之 脈은 一呼에 兩至하고 一吸에도 또한 兩至한다. 呼吸定息은 一息을 이미 다하고 바뀌는 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이를 말하는데, 脈이 또한 一至하기 때문에 五動이라고 한다. 閏은 나머지이니, 閏月을 말하는 것과 같다. 平

人이 정상적으로 息하는 것 외에 사이로 一息을 매우 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閏으로써 太息한다고 하니 또한 五至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平人이 不病한 常度이다. 그런즉 定息과 太息의 수를 모두 계산하면 대략 一息에 脈은 마땅히 六至하게 된다.”¹⁶⁾고 하여 一息에 4動하고 息과 息의 사이에 1動을 하여 모두 5動이 되며, 閏으로써 太息하면서 1動을 더하기 때문에, 平人은 脈이 6번 動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平人의 脈動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靈樞·五十營』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一呼에 脈이 두 번 動하고 氣는 3寸을 行하며, 一吸에 脈이 또한 두 번 動하고 氣가 3寸을 行하여 呼吸定息에 氣는 6寸을 行한다. 10息에 氣는 6尺을 行하고 日은 2分을 行하며, 270息에 氣는 16丈2尺을 行하니, 氣가 行하여 가운데 交通하여 몸을 一周하고 水는 二刻을 下하며 日은 25分을 行하고, 540息에 氣는 몸을 두 바퀴 行하고 水는 四刻을 下하며 日은 40分을 行하고, 2,700息에 氣는 몸을 10周行하고 水는 20刻을 下하며 日은 五宿二十分을 行하고, 13,500息에 氣는 몸을 50營 行하고 水는 100刻을 下하며 日은 28宿을 行하니, 漏水를 모두 다 하여 脈을 마친다. … 그러므로 50營이 갖추어져 天地의 壽를 다할 수 있으니, 무릇 行한 길이가 810丈이다.”¹⁷⁾고 하였는데, 호흡하는 동안의 脈動과 脈度, 日이 行하는 거리, 下하는 물의 양에 따른 시간 등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一呼一吸에 각각 脈이 두

14) 包來發 主編. 李中樞醫學全書·內經知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 “動 至也 一呼再動 一吸再動 一呼一吸合爲一息 是一息四至也 呼吸定息脈五動者 當其閏以太息之時也 歷家三歲一閏 五歲再閏 人應天道 故三息閏一太息 五息再閏一太息 太息者 長息也 此言平人無病之脈 當以四至爲準 若五至便爲太過 惟當閏以太息之時 故得五至 苟非太息 仍四至也”
15) 楠虛谷. 靈素節注類編. 浙江省.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179. “一呼一吸 名一息 三息中必有一長息 如歲之有閏 名太息也 一呼一吸 而脈四動 連長息計之 則三息中多三動 分計每息有五動 名五至也 如此爲無病至平人”

16) 張介賓. 譯注 類經 第二冊. 서울. 海東醫學社. 2001. p.251. “出氣曰呼 入氣曰吸 一呼一吸 總名一息 動 至也 再動 兩至也 常人之脈 一呼兩至 一吸亦兩至 呼吸定息 謂一息既盡 而換息未起之際也 脈又一至 故曰五動 閏 餘也 猶閏月之謂 言平人常息之外 間有一息甚長者 是爲閏以太息 而又不止五至也 此即平人不病之常度 然則總計定息太息之數 大約一息脈當六至”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1. “人一呼 脈再動 氣行三寸 一吸 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十息 氣行六尺 日行二分 二百七十息 氣行十六丈二尺 氣行交通於中 一周於身 下水二刻 日行二十五分 五百四十息 氣行再周於身 下水四刻 日行四十分 二千七百息 氣行十周於身 下水二十刻 日行五宿二十分 一萬三千五百息 氣行五十營於身 水下百刻 日行二十八宿 漏水皆盡 脈終矣”

水下		息		氣行		日行	
		1息		6寸			
		10息	× 10	6尺	× 10	2分	
2刻		270息	× 27	16丈2尺	× 27	25分	× 12.5
4刻	× 2	540息	× 2	32丈4尺	× 2	40分	× 1.6
20刻	× 5	2,700息	× 5	162丈	× 5	5宿20分(200分)	× 5
100刻	× 5	13,500息	× 5	810丈	× 5	28宿(1008分)	× 5.04

표 1. 呼吸과 脈動, 氣行, 日行, 水下의 관계

번 動하고 氣는 3寸씩 行하여 呼吸定息에 氣가 6寸을 行한다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息, 270息 등의 동안 行하는 脈의 길이를 말하였는데, 내용으로 보아 一呼一吸은 呼吸定息이면서 1息이 된다. 呼吸定息동안 氣는 6寸을 行하고, 一呼에 脈은 두 번 動하고 一吸에 脈은 두 번 動하므로, 1息 동안 脈은 모두 4動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素問·平人氣象論』에서 呼吸定息에 脈이 五動하고 閏으로써 太息한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일까? 『靈樞·五十營』의 “人一呼 脈再動 氣行三寸 一吸 脈亦再動 氣行三寸 … ”의 바로 앞 단락에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千八分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¹⁸⁾라고 하여 天은 28宿을 周하고 宿은 36분이며, 人氣가 一周를 行하면 1,008분이고, 日이 28宿을 行함에 사람의 經脈은 上下左右前後의 28脈이 몸의 16丈2尺을 周하여 28宿에 應하고, 漏水가 100刻을 下함으로써 晝夜를 나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呼吸동안의 脈動과 氣가 行하는 거리, 日이 行하는 거리, 下하는 물의 양에 따른 시간과 바로 前의 數値와의 倍를 계산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水가 下하는 것, 日이 行하는 것과 사람의 息에 따라 氣가 行하는 거리의 관계를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것은 1息에 氣가 6寸을 行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一呼에 脈이 두 번 動하고 氣는 3寸을 行하며, 一吸에 脈이 또한 두 번 動하고 氣가 3寸을 行하여 呼吸定息에 氣는 6寸을 行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1식에는 脈이 4번 動하고 모두 6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漏刻은 일정하게 떨어지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息과 氣가 行하는 倍數는 일정한데 비하여 日이 行하는 倍數의 비율은 대략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로, 1宿이 36분이 라고는 하였지만 실제로 각 宿간의 거리가 같지는 않으며, 둘째로는 氣가 行하는 經絡의 깊이와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息과 氣의 行만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셋째로는 1삭망월은 29-30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9.53059일이며, 1태양년은 365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365.2422일인 것처럼 사람의 脈動은 존재하는 개체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1息이라는 구간동안에 脈이 動하는 횟수를 세는 것이므로 대략 4動이기는 하지만 나머지가 或은 부족함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靈樞·衛氣行』에서는 「五十營」에서 언급한 28宿과 日行, 그리고 氣行의 관계에 대하여 내용상 비슷하지만 약간 관점은 달리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黃帝가 岐伯에게 물어 말하길, 듣기를 원하건대, 衛氣之行과 出入之合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歲에는 12월이 있고, 日에는 12辰이 있으며, 子午는 經이 되고 卯酉는 緯가 되어 天이 28宿을 周하는데 一面에 7星이 있고 4面에 7씩으로 28宿이 있으니, 房昴가 緯가 되고 虛張이 經이 됩니다. 그러므로 房에서 畢까지가 陽이고 昴에서 心까지가 陰이니, 陽은 낮을 主하고 陰은 밤을 主합니다. 그러므로 衛氣之行은 一日一夜에 몸을 50周하니 낮에는 陽에서 25周를 行하고 밤에는 陰에서 25周를 行하여 五藏을 周합니다. 그러므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11.

로 쪼인트에 陰이 다하면 陽氣가 눈에서 出하니, 눈이 떠지면 氣는 頭에 上行하고 ... 內踝에서 出하여 陰分을 下行하여 다시 눈에 合합니다. 그러므로 一周가 됩니다. 그러므로 日이 1舍를 行함에 人氣는 몸을 1과 8/10周하여 行하고, 日이 2舍를 行함에 人氣는 몸을 3과 6/10周하여 行하고, 日이 3舍를 行함에 人氣는 몸을 5와 4/10周하여 行하고, 日이 4舍를 行함에 人氣는 몸을 7과 2/10周하여 行하고, 日이 5舍를 行함에 人氣는 몸을 9周하여 行하고, 日이 6舍를 行함에 人氣는 몸을 10과 8/10周하여 行하고, 日이 7舍를 行함에 人氣는 몸을 12와 6/10周하여 行하고, 日이 14舍를 行함에 人氣는 몸을 25와 2/10周하니, 陽이 다하면 陰에 가고 陰은 氣를 받습니다. 陰에 처음 入함에 항상 足少陰을 따라 腎에 注하고 ... 脾에서 다시 腎에 注함이 周가 됩니다. 그러므로 밤에 1舍를 行함에 人氣는 陰藏에서 1과 8/10周를 行하니, 또한 陽과 같이 25周하여 다시 눈에서 合합니다. 陰陽一日一夜에 合하면 晝의 2/10과 밤의 2/10의 奇分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 때가 이르기도 하고 늦기도 한 것은 奇分이 다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 篇 또한 日의 行과 50周하는 人氣의 行에 대한 관계를 언급하였으며, 「五十營」에서 日이 行하는 단위가 分인데 반해 「衛氣行」에서는 日이 宿을 舍하는 동안을 기준으로 하였고, 人氣가 身藏을 각각 25周 行하는 것을 晝夜로 나누었다는 차이가 보인다. 「五十營」에서 日의 行과 人氣의 行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衛氣行」에서도 晝夜로 日이 14舍씩하는 것과 人氣가 25周씩하는 비율이 정확히 맞지 않고 하루 동안 50周하면서 총 4/10周의 奇分이 생긴다. 이러한 점을 「衛氣行」에서는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 때가 이르기도 늦기도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였다.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 日이 각 14舍씩하는 것을 晝夜로 하였지만, 하루의 陰陽인 晝夜는 보통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나눈다. 그런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은 계절의 순행과 함께 매일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晝夜 또한 일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日에 應하는 人氣의 循行에 있어서도 정확히 50周가 되지 않고 약간의 奇分이 남는 것

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이 閏으로써 太息한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歷代 注家들이 언급한 것처럼 閏은 閏月의 뜻과 유사하게 쓰인 듯하다. 달의 1년과 해의 1년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계절과 너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에 윤달을 두며, 대략 19년에 7월을 넣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윤달을 넣는 데에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 있지는 않은 것처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息과 氣가 行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중간에 太息을 하면서 脈이 더 動하게 하여 그 둘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이 바로 閏以太息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에 太息하므로 脈이 4動이 아니라 5動이어도 平人이 되는 것이며, 6動이 옳다고 한 의견은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살펴볼 때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견해인 듯하다.

3) 呼吸을 기준으로 하는 脈動

脈動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현대 의학에서도 중요시하는 기초 검사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1분간에 呼吸이 18회, 脈搏이 70회 정도 되는 것을 정상인이라고 하는 데, 이는 한의학에서 말한 平人의 脈과 매우 유사하다¹⁹⁾.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 1분이라는 기준 시간 안에 호흡하는 횟수와 맥박의 수를 언급한 것에 비하여 한의학에서는 脈動의 횟수를 측정할 때 그 기준을 呼吸으로 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脈動은 개인차가 존재하고, 動靜·계절·온도·시간·장소 등이 달라짐에 따라 우리 몸의 심박수, 호흡, 맥박수는 그에 따라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1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 고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呼吸과 脈動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만일 呼吸을 기준으로 脈動의 횟수를 측정한다면 脈動의 遲數을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呼吸과 脈動이 모두 변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맥동수가 변화하더라

19) 金仁洛. 東洋醫學의 人間과 醫道. 大韓原典醫學學會誌. 1997. 1(1). p.43.

도 호흡 속도 또한 변화하여 그 달라진 호흡과 맥 동수가 應한다면, 人身이 환경·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안에서의 균형을 잡아 정상적인 生理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平人이 된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총 맥동수가 기준 시간에 적합하더라도 호흡수와 맞지 않거나, 환경조건의 변화에도 항상 일정하다든지 하는 것을 오히려 病人이라고 할 수 있다.

人身은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가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平人을 呼吸과 脈動이 應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 판단하는 것이 1분간의 呼吸과 脈動의 횟수로 정하는 방법보다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平人の 寸口人迎

『靈樞·終始』에 脈口人迎으로 陰陽의 有餘不足, 平과 不平을 알 수 있다²⁰⁾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 “人迎與寸口相應 若引繩 小大齊等 命曰平”²¹⁾이라 하였고, 『靈樞·禁服』에서는 “寸口主中人迎主外 兩者相應 俱往俱來 若引繩大小齊等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如是者名曰平人”²²⁾이라고 하여 人迎과 寸口가 相應하는 것이 줄을 당길 때에 大小가 齊等함과 같으면서 春夏에는 人迎이 微大하고 秋冬에는 寸口가 微大한 사람을 平人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人迎과 寸口가 相應하여 齊等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盛한 不平의 경우에는 人迎과 寸口의 脈動을 비교하고 아울러 脈象과 盛倍을 측정하여 陰陽盛衰, 病의 原因(傷於寒 傷於食), 病의 所在(臟腑, 經絡, 內外), 病症의 難易生死, 病勢 變化(호전과 악화)등을 진단²³⁾하고, 각 경우에 人迎寸口の 편차를 조절하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진단 부위

(1) 寸口·氣口·脈口

人迎과 寸口의 脈動을 비교하여 진단하는 방법은 脈診法 중의 하나로, 人迎寸口脈法, 人迎氣口脈法, 또는 人迎脈口脈法이라고도 불린다. 『黃帝內經』을 찾아보면 人迎과 寸口를 비교하기도 하고, 人迎과 氣口를 비교하기도 하고, 人迎과 脈口를 비교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寸口·氣口·脈口가 모두 人迎과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듯하지만, 엄밀하게는 본래 뜻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寸口는 부위와 관련된 경우에 많이 쓰였는데, 手太陰에서 魚際와 臂肘의 사이에 있는 부위로 手太陰之脈과 手太陰之筋이 순행하는 곳²⁴⁾이고 手太陰之本이 寸口之中에 있고²⁷⁾ 經渠가 寸口之中에 있으며²⁸⁾, 診脈할 때 中手에 느껴지는 것²⁹⁾으로 太過不及을 알아내기도 하며³⁰⁾, 外를 주하는 人迎과 中을 주하는 寸口의 盛倍를 비교하여 病이 있는 곳을 판단하는 부위³¹⁾이다.

氣口는 脈에서 出하고³³⁾, 手太陰이고³⁴⁾, 五臟六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71. 1985. “持其脈口人迎 以知陰陽有餘不足 平與不平”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294. 1985.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221. 1985.
 23) 張裕祐, 林鎭錫. 黃帝內經에 나타난 脈診法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8. 11(2). p.155.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9. “肺手太陰之脈 起於中焦 … 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9. “手太陰之脈 出於大指之端 … 外屈出於寸口而行 上至於肘內廉 入於大筋之下 內屈上行膈陰 入腋下 內屈走肺”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4. “手太陰之筋 起於大指之上 循指上行 結於魚後 行寸口外側 上循臂 結肘中 上膈內廉 入腋下 出缺盆”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6. “手太陰之本 在寸口之中 標在腋內動也”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 “行於經渠 經渠 寸口中也”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4. “其至寸口中手也”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欲知寸口太過與不及 寸口之脈 中手短者 曰頭痛 寸口脈 中手長者 曰足脛痛 寸口脈 中手促上擊者 曰肩背痛”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7, 294.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6, 276, 310. pp.79-83, 221-222.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腑의 氣味가 모두 胃에서 出하고 氣口에 變見하므로³⁵⁾ 虛實을 알 수 있는 곳이고³⁶⁾³⁷⁾, 四時로 齊를 삼을 때는 가을과 관련이 있고 筋脈을 治함과 관련이 있다³⁸⁾. 人迎과는 상대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人迎은 陽을 살피고 氣口는 陰을 살피며³⁹⁾, 人迎이 盛堅하면 寒에 傷한 것이고 氣口가 盛堅하면 食에 傷한 것이다⁴⁰⁾.

脈口는 五藏之氣와 관련이 있어 五藏之氣가 絶하면 이에 應하여 脈口도 絶하며⁴¹⁾, 五十營에서 그 數至를 持하는 곳이고⁴²⁾, 人迎과 함께 陰陽有餘不足을 알 수 있는 곳으로, 人迎은 外를 主하고 脈口는 中을 主한다⁴³⁾⁴⁴⁾.

이처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는 寸口·氣口·脈口는 그 쓰임새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점을 보

인다. 그러나 세 가지가 모두 人迎과 盛倍 비교한 것과 관련하여, 人迎이 外·陽의 뜻으로 쓰인 것에 반해 寸口·氣口·脈口는 中·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靈樞·五色』에서는 人迎과 대비되는 부위로써 寸口·氣口·脈口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素問·五藏別論』에서는 ‘氣口亦太陰’이라 하였고, 『靈樞·終始』에서는 ‘太陰脈口’라고도 하였다. 또한 脈의 盛한 정도를 人迎과 비교하여 각 盛倍數에 따라 病을 판단하는 경우, 『內經』篇에 따라 寸口가 쓰이기도 하고 脈口가 쓰이기도 하였지만, 그 病所部位는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세 가지 용어가 人迎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人迎과 寸口·氣口·脈口の 비교 脈法을 人迎寸口脈法, 人迎氣口脈法, 또는 人迎脈口脈法이라는 세 명칭으로 불릴 수 있게 한 이유로 사료된다.

(2) 人迎

人迎寸口脈은 脈診을 하는 부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하나는 足陽明經에 속하는 頸側의 動脈인 人迎과 手の 寸口를 살피는 脈法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寸口를 左人迎 右寸口로 나누어 살피는 脈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後代 醫家에 따라 人迎寸口脈의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人迎과 寸口는 『黃帝內經』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므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黃帝內經』의 내용을 살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黃帝內經』에서 人迎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로, 人迎은 足陽明脈의 부위이다. 『素問·氣府論』에서 足陽明氣가 發하는 곳이 68穴인데 그 중 하나가 人迎이라⁴⁵⁾고 하였고, 『靈樞·經脈』에서는 胃足陽明之脈의 한 支가 大迎前을 從하고 人迎을 下한다⁴⁶⁾고 하였다. 『靈樞·動脈』에 胃氣는 足之陽明을 순

1985. p.186. “脈出於氣口 色見於明堂”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6. “手太陰之本 在寸口之中”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42. “氣口何以獨爲五藏主 …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藏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藏六府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4. “經脈者 常不可見也 其虛實也以氣口知之”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 138. “所謂虛則實之者 氣口虛而當補之也 滿則泄之者 氣口盛而當瀉之也”, “熱病三日 而氣口靜人迎躁者 取之諸陽 五十九刺 以瀉其熱 而出其汗 實其陰 以補其不足者”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130-131. “春取絡脈 夏取分脈 秋取氣口 冬取經輸 凡此四時 各以時爲齊 絡脈治皮膚 分脈治肌肉 氣口治筋脈 經輸治骨髓”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4. “持氣口人迎以視其脈 … 氣口候陰 人迎候陽也”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6. “人迎盛堅者 傷於寒 氣口盛堅者 傷於食”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3. “所謂五藏之氣 已絶於內者 脈口氣內絶不至 反取其外之病處 … 所謂五藏之氣 已絶於外者 脈口氣外絶不至 反取其四末之輸”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50-51. “所謂五十營者 五藏皆受氣 持其脈口 數其至也”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71-72.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6.

-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07. “足陽明脈氣所發者 六十八穴 額顛髮際傍各三 面臑骨空各一 大迎之骨空各一 人迎各一”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0. “胃足陽明之脈 起於鼻之交頰中 … 其支者 從

행하면서 陽明을 승하고 人迎을 并下한다⁴⁷⁾고 하였고, 『靈樞·寒熱病』에서 人迎은 足陽明이라⁴⁸⁾고 하였으며, 『素問·病能論』에서는 胃脘癰을 診하는 경우 마땅히 胃脈을 살피는데 人迎이 胃脈이라⁴⁹⁾고 하였다.

둘째로, 人迎은 목 주위에 위치하고 있다. 『靈樞·寒熱病』에 頸側의 動脈은 人迎인데, 嬰筋之前에 위치한다⁵⁰⁾고 하였고, 『靈樞·本輸』와 『靈樞·根結』에서는 목 주위 穴 혹은 부위의 하나로써 人迎을 나열하였으며, 『靈樞·經脈』, 『靈樞·脈度』, 『靈樞·海論』에서 脈의 循行經路를 설명할 때 大迎이나 喉嚨, 缺盆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人迎이 언급되는 것을 보아 목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人迎은 動脈이다. 『靈樞·本輸』⁵¹⁾나 『靈樞·寒熱病』⁵²⁾에서 목 주위의 穴 중의 하나로써 人迎을 말할 때에 다른 穴들과는 달리 人迎에만 動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문장의 흐름상 다른 부위는 생략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腋內的 天府에는 動脈이 언급되었지만 다른 부위에는 動脈이라는 단어가 없으며, 언급된 목 주위의 穴들을 실제로 診했을 때에 人迎이 가장 뚜렷하게 動脈이 느껴지는 부위라는 점으로 보아 人迎은 穴이면서도 動脈인 듯하다. 또한 『靈樞·動脈』⁵³⁾에 12경맥 중에서 手太陰·足陽明·足少陰은 胃脈을 明하기 때문에 獨動不休한다고 하

면서 氣가 寸口를 지나가는 것과 胃氣가 頭로 上衝하여 循하면서 마지막으로 人迎을 并下하여 陽明에서 別走하는 것, 그리고 少陰의 大絡이 十二經之海인 衝脈과 더불어 足까지 行하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寸口와 人迎을 말하고서 陽脈과 陰脈의 大小가 줄을 당김에 서로 기우는 듯함은 病이라 한 내용은 『素問·至真要大論』등에서 寸口와 人迎이 서로 相應하여 줄을 당길 때에 大小가 齊等한 듯한 사람이 평인이라 한 내용과도 通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人迎寸口脈을 診하는 부위는 手の 寸口와 頭의 人迎이라는 견해와 左人迎 右寸口라는 견해로 나뉘는데, 人迎寸口 이론의 근간이 되는 『黃帝內經』의 내용은 둘 중에서 手の 寸口와 頭의 人迎으로 보는 견해 쪽에 근접한 듯하다. 물론 左人迎 右寸口의 견해 또한 人迎氣口脈에 대하여 여러 醫家들이 연구하고 임상에서 적용하면서 발전시킨 것이고, 『黃帝內經』에서 左人迎 右寸口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옳지 않은 견해라고만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또한 臨床上的 脈診에 있어 중요한 참고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말한 人迎과 寸口를 비교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2) 寸口人迎脈의 의의

寸口人迎脈법이 內經의 다른 診脈방법들과 구분되는 점은 신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부위의 脈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診脈하고, 차이가 나는 두 부위의 脈動 倍數로써 病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寸口の 脈動을 비교하여 病의 所在, 病症, 病의 진행 정도를 알아내는 人迎寸口脈法の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經脈』⁵⁴⁾

肺手太陰之脈 … 盛者 寸口大三倍於人迎 虛者 則寸口反小於人迎也

大腸手陽明之脈 … 盛者 人迎大三倍於寸口 虛者

大迎前 下人迎 循喉嚨 入缺盆”

4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7. “胃氣上注於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 上走空竅 循眼系 入絡腦 出頰 下客主人 循牙車 合陽明 并下人迎 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0. “人迎 足陽明也”

4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3. “人病胃脘癰者 診當何如 … 診此者 當候胃脈 其脈當沈細 沈細者氣逆 逆者 人迎甚盛 甚盛則熱 人迎者 胃脈也”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0. “頸側之動脈人迎 人迎 … 在嬰筋之前”

5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0.

5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0.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67.

5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79-83.

人迎反小於寸口也

胃足陽明之脈 … 盛者 人迎大三倍於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

脾足太陰之脈 … 盛者 寸口大三倍於人迎 虛者 寸口反小於人迎也

心手少陰之脈 … 盛者 寸口大再倍於人迎 虛者 寸口反小於人迎也

小腸手太陽之脈 … 盛者 人迎大再倍於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

膀胱足太陽之脈 … 盛者 人迎大再倍於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

腎足少陰之脈 … 盛者 寸口大再倍於人迎 虛者 寸口反少於人迎也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 盛者 寸口大一倍於人迎 虛者 寸口反小於人迎也

三焦手少陽之脈 … 盛者 人迎大一倍於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

膽足少陽之脈 … 盛者 人迎大一倍於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

肝足厥陰之脈 … 盛者 寸口大一倍於人迎 虛者 寸口反小於人迎也

•『靈樞·禁服』⁵⁵⁾

人迎大一倍於寸口 病在足少陽 一倍而躁 在手少陽
人迎二倍 病在足太陽 二倍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倍 病在足陽明 三倍而躁 病在手陽明
人迎四倍者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死不治

寸口大於人迎一倍 病在足厥陰 一倍而躁 在手心主

寸口二倍 病在足少陰 二倍而躁 在手少陰

寸口三倍 病在足太陰 三倍而躁 在手太陰

寸口四倍者 名曰內關 內關者 且大且數 死不治

•『靈樞·終始』⁵⁶⁾

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

人迎四盛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5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221-222.

5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p.71-72.

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 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

脈口四盛 且大且數者 名曰溢陰 溢陰爲內關 內關不通 死不治

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 命曰關格 關格者 與之短期

人迎一盛 寫足少陽而補足厥陰 二寫一補 日一取之
人迎二盛 寫足太陽 補足少陰 二寫一補 二日一取之

人迎三盛 寫足陽明而補足太陰 二寫一補 日二取之
脈口一盛 寫足厥陰而補足少陽 二補一寫 日一取之
脈口二盛 寫足少陰而補足太陽 二補一寫 二日一取之

脈口三盛 寫足太陰而補足陽明 二補一寫 日二取之
人迎與脈口俱盛三倍已上 命曰陰陽俱溢

•『素問·六節藏象論』⁵⁷⁾

人迎一盛病在少陽 二盛病在太陽 三盛病在陽明 四盛已上爲格陽

寸口一盛病在厥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 四盛已上爲關陰

人迎與寸口俱盛 四倍已上爲關格 關格之脈羸 不能極於天地之精氣 則死矣

•『素問·腹中論』⁵⁸⁾

病熱者 陽脈也 以三陽之動也 人迎一盛少陽 二盛太陽 三盛陽明

(1) 陰陽의 診斷

「素問·陰陽別論」에 “脈에 陰陽이 있으며 … 三陽은 頭에 있고 三陰은 手에 있다⁵⁹⁾”고 하였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夫子言察陰陽所在而調之 論言人迎與寸口相應⁶⁰⁾”이라 하였으며, 「靈樞·陰陽二十五人」에 “按其寸口人迎 以調陰陽⁶¹⁾”이라 하였고, 「

5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7.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0.

5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1. “脈有陰陽 … 三陽在頭 三陰在手”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4.

靈樞·終始」에서는 “持其脈口人迎 以知陰陽有餘不足 平與不平 天道畢矣⁶²⁾”라 하여 寸口와 人迎으로 脈의 陰陽을 살피고 調之하며, 陰陽의 有餘不足과 平不平을 알며, 촌구·인영은 상응한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四時氣」에서 “持氣口人迎以視其脈 … 氣口候陰 人迎候陽也”⁶³⁾라 하였고, 「素問·腹中論」에서는 “病熱者 陽脈也 以三陽之動也 人迎一盛少陽 二盛太陽 三盛陽明”⁶⁴⁾이라 하였고, 「靈樞·熱病」에 “熱病三日 而氣口靜人迎躁者 取之諸陽人迎”⁶⁵⁾이라 하였는데, 이로써 寸口는 陰, 人迎은 陽에 해당하며, 氣口로는 陰을, 人迎으로는 陽을 살핌을 알 수 있다.

(2) 經脈의 診斷

人迎·寸口の 盛大한 정도에 따라서 病이 있는 부위를 알 수 있는데, 「素問·腹中論」에서 人迎이 一盛하면 少陽, 二盛하면 太陽, 三盛하면 陽明이라고 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人迎이 一盛하면 病이 少陽에 있고, 二盛하면 病이 太陽에 있고, 三盛하면 病이 陽明에 있고, 四盛已上이면 格陽이 되며, 寸口가 一盛하면 病이 厥陰에 있고, 二盛하면 病이 少陰에 있고, 三盛하면 病이 太陰에 있고 四盛已上이면 關陰이 된다고 하였다. 「靈樞·禁服」과 「靈樞·終始」에서는 『素問』과 거의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 手足을 구분하였는데, “人迎이 一盛하면 病이 足少陽에 있고 一盛而躁하면 病이 手少陽에 있으며, 人迎이 而盛하면 病이 足太陽에 있고 二盛而躁하면 病이 手太陽에 있으며, 人迎이 三盛하면 病이 足陽明에 있고 三盛而躁하면 病이 手陽明에 있으며 … 脈口가 一盛하면 病이 足厥陰에 있고 厥陰이 一盛而躁하면 手心主에 있으며, 脈口가 二盛하면 病이 足少陰에 있고 二盛而躁하면 手少陰에 있

으며, 脈口가 三盛하면 病이 足太陰에 있고 三盛而躁하면 手太陰에 있다”고 하여 盛하기만하면 足經에 病이 있고, 盛而躁하면 手經에 病이 있다고 하였다. 「靈樞·經脈」에서는 臟腑經絡의 流走와 是動病, 所生病을 언급하고 寸口人迎의 盛과 虛를 설명하였는데, 盛한 경우에 經의 배속은 다른 篇들과 같지만, 虛한 경우에는 “肺手太陰之脈 … 盛者 寸口大三倍於人迎 虛者 則寸口反小於人迎也”와 같이 寸口가 도리어 人迎보다 小하거나, “大腸手陽明之脈 … 盛者 人迎大三倍於寸口 虛者 人迎反小於寸口也”와 같이 人迎이 도리어 寸口보다 小하다고 하였다.

위의 다섯 篇을 살펴보면, 篇에 따라서 ‘少陽, 太陽, 陽明, 厥陰, 少陰, 太陰’이라 하기도 하고, ‘足少陽·手少陽, 足太陽·手太陽, 足陽明·手陽明, 足厥陰·手厥陰, 足少陰·手少陰, 足太陰·手太陰’이라 하여 手足을 나누기도 하고, ‘膽足少陽之脈·三焦手少陽之脈, 膀胱足太陽之脈·小腸手太陽之脈 …’과 같이 臟腑를 배속하고 ‘之脈’이라 하여 臟腑經絡의 脈임을 나타내는 등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人迎과 寸口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經脈과 관련이 있었다.

脈象은 盛倍·大躁로 표현하였는데, 盛은 虛과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盛倍·大는 모두 ‘상대적으로 크다’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躁⁶⁶⁾는 발을 연하여 움직여서 안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동요하고 급하고 빠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약간 조급하면서 빠른 象으로써 盛倍·大하기만한 足經과 구분되는 手經의 脈象으로 생각된다.

3) 四時의 반영

人迎·寸口脈法은 滑·緊·沈 등의 脈象으로 환자의 脈動을 표현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動脈法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陰陽論의으로 재구성하여 脈象뿐 아니라 脈倍를 측정하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시킨 脈法이다⁶⁷⁾. 따라서 寸의 기준도 人迎과 寸口

6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76.

6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1.

6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4.

6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0.

6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38.

66)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0. p. 2012.

67) 張溶祐, 林鎮錫. 黃帝內經에 나타난 脈診法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8. 11(2). p.161.

가相應하여 줄을 당김에 小大가 齊等한 것과 같음이라 하였다. 그런데 平人이란 언제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으면서 역동적 평형상태를 유지함을 말하므로⁶⁸⁾, 『靈樞·禁服』에서는 人迎과 寸口가 齊等하면서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한 사람이 平人이라고 하였다.

氣는 적고 秋冬에는 陰氣는 盛하나 陽氣는 衰한다⁷⁴⁾.

不病한 경우 脈口人迎은 四時에 應한다⁷⁵⁾하였는데, 氣口는 陰을 살피고 內·中를 주하며 人迎은 陽을 살피고 外를 주하고, 氣口가 四盛하면 溢陰·內關, 人迎이 四盛하면 溢陽·外格이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四時中에서 人迎은 春夏와 氣口는 秋冬과 연

	人迎	氣口·脈口·寸口
位置	結喉兩傍의 脈動處 (總頸動脈, 人迎穴)	手腕骨側의 動脈處 (撓骨動脈)
候	陽	陰
主/在	主外 / 在外	主中 / 在內在中
脈盛堅	傷於寒	傷於食
四時	春夏人迎微大	秋冬寸口微大
一倍/一盛	病在足少陽手少陽	病在足厥陰手心主
二倍/二盛	病在足太陽手太陽	病在足少陰手少陰
三倍/三盛	病在足陽明手陽明	病在足太陰手太陰
四倍/四盛	格陽 / 溢陽·外格	關陰 / 溢陰·內關
三倍四倍已上俱盛	關格 / 陰陽俱溢	

표 2. 『黃帝內經』에 나타난 人迎과 寸口 비교

四時陰陽이라는 것은 萬物の 根本이기 때문에 聖人是 春夏에는 陽을 養하고 秋冬에는 陰을 養하여 그 根을 따랐고⁶⁹⁾, 脈에는 逆從四時가 있으며⁷⁰⁾, 脈이 四時를 從함을 可治, 脈이 四時를 逆함을 不可治라고 하였다⁷¹⁾. 陽之動은 溫에서 비롯하여 暑에서 盛하고, 陰之動은 清에서 비롯하여 寒에서 盛하니 春夏秋冬은 각 分을 달리하고⁷²⁾, 春夏에는 陰氣가 적게 陽氣가 많게 發하고 秋冬에는 陽氣가 적게 陰氣가 많게 發하며⁷³⁾, 春夏에는 陽氣가 많으나 陰

관이 있다. 따라서 陽이 陰보다 더 發하는 春夏에는 人迎이 微大하고 반대로 秋冬에는 寸口가 微大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四時의 影響으로 脈이 盛해지는 정도는 病의 部位와 정도를 판단하는 盛倍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微大라는 표현을 사용한 듯하다.

III. 結論

平人의 呼吸脈動과 寸口人迎에 대하여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脈診을 할 때는 平人의 脈을 기준으로 삼으며, 平人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조화로운 不病

於春夏 陰氣少 陽氣多 … 發於秋 陽氣少 陰氣多 陰氣盛而陽氣衰”

7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9. “春夏則陽氣多而陰氣少 秋冬則陰氣盛而陽氣衰”

7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1. “不病者 脈口人迎應四時也”

68) 金仁洛. 東洋醫學의 人間과 醫道.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7. 1(1). pp.43-44.
6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4.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
7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6. “脈有逆從四時”
7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5. “脈從四時 謂之可治 … 脈逆四時 爲不可治”
7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03. “陽之動 始於溫 盛於暑 陰之動 始於清 盛於寒 春夏秋冬 各差其分”
7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0. “天地相感 寒暖相移 陰陽之道 孰少孰多 … 發

한 사람이다.

2. 平人は 一呼에 脈이 再動하고 一吸에 脈이 또한 再動는데, 再動은 脈動數가 두 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반복하여 動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一呼와 一吸에 脈이 각각 再動하고 閏으로써 太息하므로 呼吸定息에 脈은 五動하며, 呼吸定息에 脈이 動하는 횟수와 閏以太息에 대한 논란은 『靈樞·五十營』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脈動의 횟수를 측정할 때 그 기준을 呼吸으로 한 점은 人身이 항상 일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가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1분간의 呼吸과 脈動의 횟수로 정하는 방법보다 매우 합리적이다.

3. 『黃帝內經』에서 寸口·氣口·脈口은 그 의미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人迎의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黃帝內經』에서 人迎은 足陽明의 부위이며, 목주위에 위치하는 動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寸口人迎脈法으로 診脈할 때에 手의 左人迎 右寸口보다는 手의 寸口와 顚의 人迎을 짚는 것이 본래 뜻에 가깝다.

4. 寸口는 陰, 人迎은 陽에 해당하는데, 寸口人迎脈法에서 寸口는 陰經과 人迎은 陽經과 연관성이 있으며, 四時中에는 春夏에 人迎이 微大하고 秋冬에 寸口가 微大하다.

3. 이봉교. 한방진단학. 서울. 成輔社. 1986. pp.161-162.
4.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2000. p.128, 248, 264.
5.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冰柱.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333-334.
6. 張介賓. 譯注 類經 第二冊. 서울. 海東醫學社. 2001. p.251.
7. 章楠. 靈素節注類編.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179.
8. 包來發 主編. 李中梓醫學全書·內經要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
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參考文獻

<논문>

1. 金仁洛. 東洋醫學의 人間과 醫道.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7. 1(1). pp.43-44.
2. 張溶祐, 林鎮錫. 黃帝內經에 나타난 脈診法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8. 11(2). p.155, 161.

<단행본>

1.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136.
2. 馬蒞.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22.